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학교용지 확보 조항 삭제

교육청과 협의 기간 최소 1년 이상 걸려 불가능
14일 제안서 접수...10월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 용지 확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계획을 수정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2차 수정 공고를 내 학교용지 확보 조항을 삭제하고 고도제한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 기간이 최소 1년 남짓 필요한 만큼 제안서 제출 기한인 오는 14일까지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공원 개발

계획이 나오면 입주 세대 수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린 만큼 업체와 당장 협의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이번 제안서에서 학교용지 확보 규정을 삭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뒤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다.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군부대와 업무 협의가 어려운 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개발 대상 일부 공원 지구는 공군 전투기 비행항로에 있어 아파트 층수 등 고도제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지난 6월 11일 사업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6개 공원 7개 지구에 모두 183개 업체가 의향서를 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공원은 중앙·일곡·중외·송정·운암산·신용 등 모두 6곳이며, 이 가운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나뉘어 시행한다.

지구별 접수 현황을 보면 중앙1 지구와 중앙 2지구에 각 27개와 29개 업체가 접수했으며 중외 25개, 일곡 27개, 송정 23개, 운암산 29개, 신용 23개 등이다.

의향서는 모든 공원에 낼 수 있지만 제안서는 단 1곳에만 제출할 수 있어 오는 14일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업체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14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10월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공원 전체 면적은 711만8839㎡, 개발 대상인 비공원 시설 면적은 65만9901㎡, 공원 대상지 면적은 39만8412㎡이다. 나머지 606만526㎡는 원형지로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전체 면적 중 아파트 등이 들어설 면적은 9.3%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45년 공직선배 조언의 핵심은 혁신과 청렴 이용섭 광주시장 신규임용후보자과정 특강

“공직자가 혁신하고 청렴해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45년 공직 선배가 공직의 길에 들어선 신규 임용 후보자에게 건네는 조언의 핵심은 단연 ‘혁신과 청렴’이었다.

지난 1973년 11월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오전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서 ‘2018 신규임용후보자과정’ 특강에 나섰다.

그는 “정책과 의사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광주시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결정되고 공직자 개개인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명예와 부는 공유했을 수 없다”면서 “청렴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인간관계에서도 안전거리가 필요하며 부조리에 대한 개념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일 아침 언론에 보도돼도 담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청렴 실천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고 조언하며

“공직자가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고 공직자는 늘 선비정신으로 무장해야 하며, 원칙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다”며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찰을 주문했다.

이어 “혁신적이고 창의성이 있어야 유능한 공직자”라며 “산업화시대에는 성실·근면한 순종형 인간을 요구받았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도전형 인재가 더욱 요구되는 사회가 됐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신규임용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공직자 상으로 ▲문제해결이 있는 창의적인 공무원 ▲미래를 준비하는 꿈이 있는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 등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공직자는 공직자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며 “채워져 만족하는 것보다 비워져 만족하는 헌신·봉사·절제의 길을 걷기 바란다”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공공시설 공사비 공개 표지판 설치 의무화

전남지역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될 전망이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무안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남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 도내 5억원 이상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고 수산·리모델링 비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계약 규모는 187건, 30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조례의 적용을 받는 5억원 이상 공사는 139건, 3016억원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무등산 탐방로 안전 점검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4일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로에서 안전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폭우에 따른 탐방로·시설물 피해 현황과 급경사지·산사태 취약 구간 등을 점검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총체적 부실

정부 점검 결과 사업별 예산 배정 안고 전담인력도 배치 안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5일 광주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6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긴급 현장점검을 벌여 운영 부실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점검 대상은 ▲지역SW 기업성장지원 ▲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역SW 품

질역량 강화 ▲지역SW 융합클러스터 등 크게 4가지로, 점검 결과 “사업 추진, 진척도, 인력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될 정도로 총체적 부실이다”는 판정을 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업성장지원 사업의 경우 수익원의 예산이 연초에 교부됐음에도 사업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상반기 예산 지출액이 0%, 즉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NIPA와 협약 당시 5명

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중도에 승인도 통보도 없이 총괄책임자를 비롯 4명이 변동됐고, 일부는 내부문서상 영동한 곳으로 발령나 있는 등 인력운용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 신규 고용은 10명을 목표로 잡았으나 상반기 실적은 둘 다 제로에 가깝다. 마케팅, 네트워크 분야 실적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품질역량강화사업도 퇴사 인력에 대한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전담인력도 배치되지 않은가 하면 관리자의 업무 인수인

계도 미흡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고, 일부 인력은 신규 발령 후 병가 전까지 석 달간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집행률도 10%대로, 인건비와 국내 출장 등을 제외한 사업 관련 지출은 0원에 가까웠다. 역량센터 이전계획은 보류 상태에 놓였고, 상반기 동안 테스트도구 활용문의조차 전무했으며 품질전문 인력이 없어 기업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 심의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융합클러스터 분야도 부실 투성이다. 올해 협약 당시 사업참여 인력 6명 중 5명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추진팀에서 제외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것으로 진단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미세먼지 걱정 마세요”

전남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전남도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미세먼지 안심 학교’ 실현을 위해 전남지역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기청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642개 어린이집에 3057대, 516개 유치원에 697대, 470개 초등학교에 3623대 등 총 1628개교에 737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 중 ‘나쁨’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교실 내 실내공기질 악화를 우려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기능 보장 국고 보조 사업을 통해 국비 81억원,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49억원 등 모두 130억원을 투입한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남교육청과 협의해 8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2022년까지 미세먼지 지도 제작과 알림 서비스를 위해 이동 측정 차량 구입·측정시스템 구축에 2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 시범사업에 1억원, 미세먼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원을 투입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실생활에 적합한 초미세먼지 계속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6527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31749802

877811202

J6 10 point

J5 8 point

J3 6 point

J2 5 point

J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문의 1566-9988

신세계안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융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